

【서식5】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분과명 : 문화소통분과)

일 시	2023. 5. 18.(목) 10:00			장 소	본관 공감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김영철위원, 이로미 위원	
	15	13	2		
안 건	2023년 주민참여예산 문화소통분야 상반기 모니터링 및 현장 모니터링 사업 선정				

○ 참 석 자 : 문화소통분과위원 및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담당자

○ 심의내용

- 2023년 주민참여예산 문화소통분야 4개 사업 서면 모니터링

* 사업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1. 섬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 (예술정책과)

선정단체의 장르가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장르로 편중되어 보이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향후 다양한 장르의 심의위원 위촉 필요

2. 인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서비스 개선 (미추홀도서관)

전담관리의 효율적이고 명확한 관리방안과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지역에 대한 확대 필요

3. 초등학교 북스타트 사업 확대 실시 (미추홀도서관)




차기년도 수혜자 연속성/지속성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필요

4. 시립도서관 청소년 및 트윈세대 도서 확충 (미추홀도서관)

청소년의 독서습관과 대상을 다양화 하는 사업확대를 위해 예산 확충 필요

○ 의결사항

- 2023년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사업 선정 (초등학교 북스타트 사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박광현		이상명		이시현	

위 원	발 언
위원장	<p>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소집되고 처음 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2차 문화소통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주민참여 예산 문화소통분과 사업 4건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현장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앞에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각 사업에 대한 인천시청 사업 담당자의 내용 설명 질의 응답 및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청 사업 담당자께서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p>
윤준호	<p>안녕하십니까 예술정책과에 근무하는 윤준호 주무관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처음 시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되는 상황이고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관련 예산은 2억 원으로 책정 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내에 있는 강화 옹진 섬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상대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문화 사회계층이 문화 예술 분야의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강화 옹진 소재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단들이 미술 활동 음악이나 연극, 올해는 연극 부분을 좀 많이 가게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저희 문화재단 두 분께서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팀에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p>
백지영	<p>안녕하세요. 저희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섬마을 문화살롱을 진행 담당하고 있는 지역문화팀장 백지영 그리고 담당자 김동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에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단체를 통해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공모 신청을 받았었고 그와 동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시설 내지는 기관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장르로 이제 보기를 희망하시는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보통 단체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예술 관련 사이트 통해서 안내했었고요. 그리고 강화군과 옹진군 시설 관해서 이 사업을 안내할 때에는 시를 통해서 군구 쪽으로 이렇게 행정망을 통해서 안내를 드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의회 쪽을 통해서 복지시설 쪽에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화 옹진군이 기본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쪽에도 이 사업을 희망하시는지 희망하신다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접수 이후에 이제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이제 기관들 매칭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단체별로 적합하게 자료들을 잘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강화군이나 옹진군 쪽에서 시설별로 또 무리한 후시 상업적인 시설 쪽에서 신청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도 보았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에서 신청하신 건 아니었고 대부분은 저희가 예시로 드렸던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대체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각 시설에 매칭하면 좋을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 들어왔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음악 장르가 많았고 또 연극과 전통 예술 부류가 많아서 이 분야에 각 전문가 위원 한 분씩 총 세 분을 모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우선순위로 세워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설 쪽에서 어떤 장르를 보기를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선정을 하고 매칭을 하는 게 좋을가를 보았는데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보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우시다 보니 연극을 희망하시는 시설들이 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p>

	연령대가 높다 보니 전통 쪽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악 공유를 희망하시는 그런 의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 내용과 시설에서 희망하는 장르들을 매칭하여서 최종적으로는 26개의 프로그램과 42개의 시설을 매칭하여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크게 지역별로 매칭된 결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선택 일정상 1박이 수행되게 되는 1박을 하셔서 진행해야 되는 이 지역들은 한 8개 섬에서 10개 프로그램 정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6개 섬 내지는 강화 내륙 쪽에서 32개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번 16일부터 강화군에 있는 시설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처음 진행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쪽 11월까지 42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사업에 대한 질의의 모니터링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어진 위원	한 가지만 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동일한 장르의 동일한 프로그램 같은데 금액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평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지금 400만 원대 지원금인데 인천 콘서트 챔버 같은 경우는 지금 900만 원대 2배 이상 약간 좀 동일한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런 차가 좀 편차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백지영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프로그램 진행할 때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고에 안내는 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 단체에서 우리는 400만 원까지 내지는 500만 원까지로 해서 한 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해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예산 계획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평필 하모니랑 콘서트 챔버 같은 경우에 구성 인원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진행 횟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콘서트 챔버 같은 경우에는 아차도 노인회가 선택을 이용해서 일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금으로 100만 원 더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엄정산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시설에서 신청했다 했는데,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백지영	아까 설명드린 자료 뒤에 보시면 별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내역을 실었는데요. 유아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마니산 유치원 이런 식으로 유치원으로 해서 영유아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그 외에는 시도리마을번영회라든지 아니면 아차도 노인회처럼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분들께서 구성하시고 있는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서 공연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상명 위원	지금 이제 공연을 보면 매칭 시설이 한 곳인 곳이 있고 두 곳인 곳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시설에서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임의로 배정을 한 건지요.
백지영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한 시설당 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게 있어서 그것들은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하였고 대신에 단체별로 한 곳의 시설만 방문하느냐 두 곳의 시설을 방문하느냐는 저희가 좀 시설 쪽에서 원하는 희망 장르가 아무래도 이제 음악 연극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단체가 모든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를 조금 고려한 것이 그다음에 시설 쪽에서 조금 더 가고 상세하게 음악 중에서도 클래식 연극 중에서도 조금 댄스의 성격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신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출연해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이상명 위원	그러면은 장르가 지금 대중음악 쪽이나 대중 예술 쪽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 부분을 시설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했지만 골고루 배분을 해서 시설에다가 그 명단을 주고서 매칭을 하게 한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시설은 장르는 모르면 어느 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상세 프로그램을 모르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클래식 써놓고 그걸 하고 재단에서 임의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러다 보니까 편중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심사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연극이 많이 들어오고 클래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 심사위원도 그쪽으로 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대중음악이나 대중 예술을 지원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제 대중음악은 거의 다원 예술에 가까운 경우가 거의 80%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유가 뭘지 지금 궁금합니다.

백지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방식을 진행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섬으로 빨리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좀 기간을 앞당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모와 그다음에 시설의 접수를 동시에 진행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 쪽에서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신청해 주세요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관람을 희망하시는 어떤 장르가 무엇이나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연극 내지는 뮤지컬로 한 18개 시설에서 1순위로 꼽아주셨고 그다음에 전통이 8군데 그다음에 음악으로 1순위 꼽아주시는 게 한 12개 시설이었는데 클래식 아니면 영화 음악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 주시는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 무용 2곳 민요 한 곳 이런 식으로 좀 1순위를 희망해 주셨고 저희가 최대한 아무래도 좀 제한된 정보를 제공했으니 그래도 기왕이면 1순위의 장르를 1순위로 희망하시는 장르를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칭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좀 아무래도 좀 다소 장르적으로는 대중음악이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상명 위원	그거는 시설에서는 대중 예술 쪽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백지영	네, 1순위로는 없었습니다.
신은경 위원	일단 1차적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르를 조사하셔서 하신 부분은 어쨌든 기간에 잘 하신 부분이긴 하나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입장에서는 장르의 어느 정도 편중성도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하실 때 심의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서 다양한 문화를 좀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나 이런 평 심사도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게 조금 아쉽고요. 너무 대중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해서 1순위를 잡아서 심사를 평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장르에 대한 불공정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백지영	사실 이전에 저희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을 때 처음에는 과거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설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장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단체한테도 어떤 공연을 하고 약간 문화 봉사 같은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선순위에 오르지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조금 매칭을 해 드리는 경우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경우가 이제 시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희망했던 게 아닌데 조금 아쉽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희망하는 걸로 그래도 매칭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피드백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가능한 좀 1순위의 장르를 매칭해 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이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내년에도 유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배원	이게 지금 오랜 세월 동안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먼 바다로부터 가까운 바다 도처 지역 등에 문화 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볼 적에 시설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겠조 대상은 주민들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그런 걸 더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균형 있는.. 어느 장르든 다 중요하죠 소중하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적으로 갈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장르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재단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집계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야지 여기 뭐 물론 외부 전문가들도 상당히 좀 편중적으로 장르가 치우쳐져 있어요. 이분들에 의한 장르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백지영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희망하시는 장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문가 심의 위원분들을 모시는 과정은 아무래도 저희 예산의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르의 전문가 심의위원을 모시는는 어려웠었고요. 저희 쪽으로 공모 신청해 주셨던 제 단체들이 진행하려는 프로그램의 장르를 고려해서 좀 많은 신청이 들어왔던 장르들을 고르게 잘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대 기본적으로 연극 신청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프로그램 접수됐었던 게 연극이 24건 접수됐었고 그다음에 음악이 33건 접수 됐었는데 음악 33건 중에 이제 대중음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단체는 5개 정도 단체였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인천 음악 지형의 특성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클래식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국악 베이스로 퓨전 형태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단체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음악과 중심이 되는 음악 분야의 심의위원을 모시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그 외에 전통 예술로 23개 단체가 또 신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연극과 그다음에 좀 넓은 범위의 음악을 다뤄주실 수 있는 심의위원 그리고 전통 예술 쪽에서 활동하시는 심의위원 이렇게 세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유희 위원	작년에 운영할 때 기관들의 반응 피드백이 만족했는지, 그에 대비해서 올해 센터 기관 경쟁을 이나 선호도가 어떤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 쉬울거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섬 쪽으로 국한하지는 않았었고 인천 전역으로 해서 이제 사업 진행했었는 데요. 작년에는 조금 기조가 달랐었던 것이 좀 아무래도 문화 소외라는 말이 잘 접하지 못한다 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시설에 두 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래도 기회를 많이 드리겠다라는 차원으 로 진행을 했어서 조금 더 여러 번 접할 수 있으니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지역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먼저 보신 위원님들 도 계시겠지만 1차에서는 조금 미달이 났어서 이제 한 번 더 2차 공모를 진행해서 이 시설 신청을 받았었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예산 범위로 했을 때는 한 33개의 시설 정도에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 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당초 계획보 다 한 3개 시설 더 많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 있었던 색동원에서의 프로그램 반응을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공연만 하고 그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 미약하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뒀서 이제 여왕에는 단순하게 앉아서 관람을 하시다가 이제 공연 말기로 갈수록 조금 일어나서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감동 있게 공연 마쳤습니다.
	단체로 해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지금 매칭 시설을 연결을 지금 했는데요. 제가 이런 이거는 한 가지 예인데 서울에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칭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특히 문화 향유 부분에서 제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센터나 매칭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장르를 연구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뮤지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 얘기를 몽뚱그려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뽑았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분 이 예를 들면 이 센터가 연극을 원했다면 그중에서 연극을 매칭한다든지 혹은 복합적인 부분에서 서의 어떤 공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오히려 역으로 조금 제시를 해서 좀 장르의 불균형성 을 조금 더 맞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일단은 단체로 자주 기준이 된 부분이 있는데 단체 매칭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 소외 매칭을 받는 쪽에서는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장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조금 우리가 역 제시를 하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장르 안에 특정 장르 안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지를 제안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금 올해의 어떤 시행착오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지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별첨으로 단체별 매칭 시설 내용 및 지원 규모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조금 기술상의 문제이기에는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금해 드리는 이제 지급처가 아무래도 단체이다 보니까 조금 단체 입장에서 내가 어느 시설을 가고 이 시설들을 가는데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고 그것을 교부 신청해야 되는가를 아시기 편한 방법으로 좀 작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설에도 별도로 저희가 어떤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제 따로 안내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원	작년에 그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개선할 점이나 현장 모니터링은 나갔죠? 그런 개선할 점이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나요
백지영	사실 이번에 저희가 단체나 시설을 대상으로 동시에 공모를 진행했었던 것은 작년에 오히려 먼저 사전에 프로그램 풀을 이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더져서 서 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원래는 상반기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각 시설별로 공연을 진행한 게 7월 이후 이제 8월부터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하려면 프로그램과 시설을 동시에 동시 공모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그런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올해 여러개 해봤는 데 또 올해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이제 시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올해 아쉬운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17번에 인천 콘서트 챔버가 매칭 기관에 가서 이 사람들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요양원으로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요양원도 이제 여러 봉사단체가 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한 번 이렇게 가고 다른 요양원을 옮기려고 그랬는데 이 요양원에서 계속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양원 원장하고 요양원에 입소돼 있는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재요청을 할 때는 그분들이 원해서 이제 재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야가 저희도 이제 가서 보면 공연을 할 때 클래식도 연주해 주고 또 일반 가요도 연주해 주고 옛날 흘러가는 가요도 연주를 해줍니다. 반응이 제일 좋을 때가 맨날 흘러가는 가요를 연주할 때가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콘서트 챔버가 요양원 가서 그런 흘러가는 옛 노래를 과연 얼마큼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지 그게 좀 매칭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강화군이나 이런 데를 좀 찾아가고 싶는데 그쪽에서 강화군에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인천에서 계양구에서 주로 자리 잡고 활동하 고 있는데 계양구를 벗어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그런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소외된 그런 요양원에도 좀 이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네요
고춘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콘서트 챔버는 지금 말씀하신 흘러간 노래 부르는 단체입니 다. 요양원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 콘서트 챔버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은 이제 ‘클래식으로 듣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셨던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인천 출신 작사가의 동요 내지는 일제강점기 월미도의 풍경을 담은 노래 등으로 해서 과거 근현대 쪽 배경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팀이어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도 계시는 시설이지만 이렇게 매칭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 제안해 주셨던 것이 섬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공간적인 지역적인 범위를 좀 제안을 해줘서 제약을 좀 주셔서 제안을 주셔서 섬을 중심으로 매칭을 했었고요. 만약에 혹시 이제 차년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나 섬마을이나 이런 식의 표현을 빼고 해 주신다면은 아마 인천 전 범위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담당자가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이실 거예요. 단체 관리도 힘들시고 또 현장의 위치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관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가장 성패는 모니터링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리가 좀 있고 단체 관리가 힘든 프로그램들은 사전에 신청한 단체의 모습이 아니라거나 출연진이 바뀐다거나 혹은 시설이 바뀐다거나 해서 현장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요. 현장에서는 공연을 개최했고 반응이 좋았다 정도의 약간 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성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아무리 재단 쪽에서는 좀 더 품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가시는 단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참여가 됐는지를 철저한 모니터링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요. 좀 그런 방안을 고민하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현어진 위원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올해 이번 화요일에 첫 공연 진행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금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좀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일정한 지표들이 정확하게 저희 쪽으로 제출하신 계획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에 맞춰서 정말
백지영	

	<p>각 출연진들이 잘 제대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설 쪽으로도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아쉬웠는지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도 받을 예정입니다.</p> <p>그리고 그 외에 조금 한정된 범위나마 한 15개 시설 대상 쪽으로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프로그램들 진행 괜찮았는지 그리고 혹시 앞으로 또 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p>
이배원	<p>사실 이게 다 문화 소의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p> <p>어느 장소든 어떤 기획사업에 따라서 전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좀 더 그런 범위를 넓게 해서 그런 기획도 요즘은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에서 아쉬운 면이 많네요.</p>
백지영	<p>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프로그램 신청들을 받을 때에는 각 단체가 할 수 있는 공연 시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묻는 게 있고 그 외에 참여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같이 물었는데 이거는 장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조금 차이는 있었어요.</p> <p>요즘의 추세가 단순히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역시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다면 음악 쪽으로는 악기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이제 객석에서 나와서 뭔가 부작을 하면서 배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시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작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두었는데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p>
위원장	<p>더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p>
위원장	<p>위원님께서 모니터링 의견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p>
위원장	<p>인천시청 사업 담당자께서 미추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관한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p>
방인영	<p>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도서관 문화정보부 상호 대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방인영입니다.</p> <p>미추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p> <p>본인이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이 없을 경우에 협약된 도서관들이 소장된 소장한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호대차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자리 잡아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p> <p>구립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각 행정 구역 내 도서관들과 주로 연계해서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구립 도서관들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같은 행정 구역에 속한 도서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상호대차 운영에 유리하나 미추홀 도서관의 경우에는 본관과 분관 6개 관이 인천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간 사업 추진의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p> <p>하지만 2년 연속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제안될 정도로 시민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있었고, 도서관에서도 관련 부서의 꾸준하게 상호대차 사업 필요성을 독한 결과 2023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p> <p>간단히 4월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에는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편익상 보기 좋게 1월, 2월, 3월, 4월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넘나들면서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어요.</p> <p>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대차실을 조성을 했고, 사후 대처 프로그램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 작업과 도서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작업을 구축하였으며 시범 운영과 홍보를 통해서 현재 4월 3일부터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일단 이 상호대차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들과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 6개관은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고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이고,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마전도서관, 송도국제연구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p> <p>또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회관역과 도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도 함께 이용자들이 쉽게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도서관과 소속 도서관 간의 소장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상대적으로 장서가 부족한 관들의 이용자들이 현재 만족하면 사용하고 있고요.</p> <p>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도서 대출 및 통합 반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p>

위원장	<p>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p>
이상경 위원	<p>상호대차 서비스가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p>
방인영	<p>네 올해 처음이에요.</p> <p>저희는 상호 대차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전 지역의 도서관들이 분포가 돼 있고 미추홀 도서관이 장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청라호수도서관이나 마전도서관에 있는 이용자들이 미추홀도서관이 1920년대부터 소장된 책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가까운 거리에서 받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수요도 많았지만 계속 예산 편성이 못 되다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되었습니다.</p>
김인철 위원	<p>각 군구에도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p> <p>여기 도서관하고 일반 군구에 있는 도서관하고 통합 서비스면 안 되나요?</p>
방인영	<p>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신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소속 도서관들이 운영되는 주체가 제각각이에요.</p> <p>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들 중앙 도서관, 연수 도서관 이런 소속 도서관들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거든요.</p> <p>그리고 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운영 주체가 다 달라요.</p> <p>그리고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p> <p>그래서 사실은 이 상호 대차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려면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 똑같아야 이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다 연계가 되거든요. 이 통합 시스템을 인천이든 어떤 지역이든 다 통합으로 구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p>
김인철 위원	<p>제가 어쨌봐는 이유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통합 서비스는 아주 좋은 거예요.</p> <p>좋은 건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미추홀도서관이 시 도서관 중에는 대표 도서관이고 지역 도서관이 지금 6개 있는 거잖아요.</p> <p>그런데 그러면 상호 데이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6개의 도서관을 구축한 이후에 서비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p>
방인영	<p>서비스는 저희가 4월 3일부터 시작을 했고 운영되는 건수는 저희가 4월 통계를 봤을 때 책이 1300여 권 정도 제공이 됐습니다.</p> <p>4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대략해보면 1년에 1만 2천여 권 정도가 1만 2천여 권을 이용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p>
김인철 위원	<p>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대여 기간이잖아요.</p>
방인영	<p>그런 것도 동일한지, 그리고 책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p>
방인영	<p>네 대여기간도 동일하고, 검색을 해서 우리 도서관 책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된 다른 도서관이 그 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대차 신청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p>
고춘 위원	<p>여기 미추홀도서관이 시 대표 도서관인데 옛날에 율목동이었고요.</p> <p>근데 이렇게 지역 도서관 보니까 다 부자 동네에만 있어요.</p> <p>조금 뭐라 그럴까 구도심권 쪽에는 지역 도서관이 거의 없는데 이거 좀 의아스러운 점이고요.</p> <p>또 하나는 외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빌려주는 거 말고 특히 뉴욕 주립도서관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더 책 빌려주는 거 말고 좀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 친화적인 그런 거는 좀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p>
방인영	<p>주민 이용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p> <p>지금도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라든가 서점에서 직접 책을 바로 가져가서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냥 문화 프로그램적인 서비스는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p>
신은경 위원	<p>저도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는데요.</p> <p>도서관은 게 도서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p> <p>이 자산 같은 경우에 상호 대차를 하게 되면 관리적인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상호대차를 하게 됐을 때 이 책에 대한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p>
방인영	<p>대차로 해서 움직이다 보면 아마 관리 주체가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이 1차적으로는 관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남의 손을 이렇게 타가지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 이 도서를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p> <p>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p> <p>상호대차로 운영할 때의 관리 계획은 따로 없고요 도서관 장서에 대한 관리는 장서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p>
신은경 위원	<p>혹시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이런 대차 서비스를 하다가 분실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있나요?</p>

방인영	그런 경우는 일단 이용자가 기다리시니까 먼저 이용자한테 통지를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찾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일단 그 도서를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유희 위원	저는 이제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을 한 번도 안 해본 위원이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집행률이 40% 정도인데 4월인 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초기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 구축이 다 됐고 이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단계인데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지 궁금합니다.
방인영	1억 5천 중 1억원 상호대차서비스 책 운반 용역 인건비이고, 5천만원이 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도서관 담당자들이 설문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따로 외주를 줘서 저희 비용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명 위원	진행 안 된 한 60% 조금 넘는 금액은 거의 매달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방인영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용이 됐으면 이 차후에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방인영	네, 사용가능합니다.
현어진 위원	월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운영 서비스 인력비로 사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전담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요?
방인영	운반하는 인력은 두 명이에요. 그리고 워낙 동선이 인천시 전체가 돌아 보니까 넓어지고 이분들이 하루에 103km를 도세요.
방인영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너무 과도하지 않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인원을 조금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초등학교 북스타트 사업에 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이정현	미추홀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정책부 이정현 주무관입니다. 초등학교 북스타트 사업 확대 실시에 관해서 설명드리자면,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단체와 전국에 있는 40여 개 지자체와 300여 개 이상의 공공도서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독서진흥 운동이고요. 인천시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영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서 인천시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영유아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독서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월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월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시 공공도서관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책꾸러미 도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보조금을 교부했고요. 4월부터는 기관별로 사업 시작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4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27개 공공도서관에는 시 소속 도서관 8개반과 군구 10개 군구 그리고 교육청 9개반이 있고요. 구립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학교는 총 60개 관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립도서관이나 신입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랑 연계해서도 같이 꾸러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부터 12월까지 책꾸러미를 교부를 완료하고 후속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8월에는 저희가 중간에 또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중간 정산하고 같이 사업 진행 상황도 공유하고 사업 운영하면서 문의 사항이나 보완할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최종 정산 보고와 결과 보고회 개최 그리고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철 위원	예산이 6천만 원이면 5,800만 원을 집행은 했잖아요. 그 집행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정현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부분은 책꾸러미 안에 책이 두 권씩 들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당 책을 두 권씩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령대별로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후속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방학 때 방학 기간에 독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1100만 원 같은 경우는 책을 다 구입해서 거의 99% 집행이 되었고요.

강유희 위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속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이정현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부모 교육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랑 협력을 해서 북스타트 실버 도우미분들을 선발해서 이제 도서관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도서관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서 북스타트데이나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든요. 또 사실은 1-3단계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4단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이제 주민 참여 예산도 포함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초등학생이랑 프로그램이 가장 지금 빨리 배부가 되고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본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은경 위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지금 6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혜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총 사업비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책 한 권에 1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 총 한 사람당 두 권씩 받으니까 한 3천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은 이제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매년 북스타트 선정 도서 목록을 제공을 해줘요. 단계별로 1단계는 20건인데 이번에 4단계 초등학생 리스트 같은 경우는 80건을 제공을 해주셔서 80건을 담당자 27개 공공도서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다 제 책상에 펼쳐놓고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어진 위원	이게 지금 영유아와 초등학생 3천 명에게 도서를 두 번씩 제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제공으로 끝나는 건가요, 다시 회수가 돼서 다시 그다음 해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공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정현	네 이거는 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배부하고 회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니다.
현어진 위원	그리고 목적 자체가 독서에 대한 확산이고 뭔가 도서관의 즐거움을 좀 확대를 하려면 이런 책을 제공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좀 도서관을 자주 찾아오게 한다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처음에 설립하신 사업 계획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립도서관 청소년 및 트윈세대 도서 확충 사업에 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문은진	도서관 청소년 및 트윈세대 도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라는 청소년 기본부에서는 이제 9세에서 24세로 나왔고요. 여기서 말하는 트윈 세대는 8세에서 14세는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추홀도서관과 분관 등 5개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도서를 지금 4,000권 확충해서 별도 전시 공간에 전시를 하고 저희 하반기 때는 이제 청소년 리틀 세대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해서 월교 등이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월별로 책을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 1,103권이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총 집행 금액은 1,600 정도의 집행률은 2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사업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금부터는 현장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4개 사업 중 현장 점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미팅 사업은 한 건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 모니터링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어 이번엔 선정하지 않고 하반기에 선정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위원	모니터링 나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문화살롱 사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명단이 있으시니까요. 한번 좀 이렇게 어떤 걸로 봤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주무관님이나 재단 측에다가 이게 언제 날짜에 실행이 되는지 여쭙봐서 조율을 해서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이 한번에 볼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방법 찾아보시고 다

백지영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한번 추진 아마 모니터링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추진 건들이 이제 있는데 요. 그 명단을 저희가 그냥 공유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그래도 나는 요건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면 해당 단체와 시설이 진행하는 일정들은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이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링 오시게 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비용들이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예산 안에서는 조금 여력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시는 부분은 시 쪽에서 조금 해결을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주무관	모니터링 관련 여비가 예산에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보시는 거는 문화재단 쪽에서 지원은 해주실 수 있으나 예산 쪽의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유희 위원	개인적으로 북스타트 사업의 후속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이거를 보고 싶었는데 찾아가는 문화 살롱을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북스타트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을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김태경 주무관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상반기에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반기에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하시려면 위원님들 중에 30% 이상은 참석을 하시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 30% 정도니까 위원님들 지금 열 다섯분이잖아요. 그럼 30%인 세분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만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상반기에 어떤 걸 할지 하반기에 어떤 걸 할지를 정해 주시면 되고 지금 오늘 정하는 자리는 상반기 모니터링을 할지 여부입니다. 상반기 모니터링은 5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하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네, 그럼 상반기에는 문화살롱 사업으로 모니터링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백지영	상반기에는 8개 공연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강화 지역도 있고 백령도라든지 자월도 연평도 요 정도로 일정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지금 좀 섬으로 들어가셔서 거의 1박을 하셔야 되는 지역이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상명 위원	위원님들이 고려를 좀 해야 될 게 공연이 하반기에 많으면은 이거를 하반기로 밀고 상반기에는 강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스타트 사업에서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다 하면은 이거를 상반기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정산 위원	강화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저녁에만 공연 시간에 맞춰서 거리상으로나 당일로 갔다 올 거리지만 예를 들어서 섬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갔다 온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 필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코스를 정해야겠죠.
이상명 위원	문화살롱 사업을 하반기 때가 아무래도 근거리에서 가능한 사업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상반기 때는 강유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북스타트 사업이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는 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이 저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딱 정해놓으면 다른 특별한 변동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은경 위원	저 역시도 좀 그 이유는 동일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평가하다 보니까 6월까지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타이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 살롱은 하반기로 미루고 다른 스타트나 이런 쪽으로 조금 해서 조금 선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기간상의 문제도 좀 있어서 그런 건 좀 고려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5월 6월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 한데 일단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미추홀도서관에서 북스타트 20주년이라서 행사를 좀 크게 하거든요.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시면 아마 모니터링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이 너무 일정이 안 되시면 5월 24일 수요일 미추홀 구립도서관에서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작가의 만남 프로그램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때도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5월 6월 안에 일정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파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중으로라도 파악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위원분이 세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실시간으로 피드백들이나 의견들이 다 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아서 다른 의원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가보지 못한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또 이제 평가를 할 때 모니터링 자료를 만들고는 아 왜냐하면 아마 강유희 위원님이 다섯 분을 모시고 가려면 이게 또 쉽지 않을꺼 같거든요. 5명이라는 기준을 확 정해놓으면 분명히 압박을 받거든요. 모니터링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는 건위원님 하나하나 의견이 다 중요한 건데 5명 기준을 못채워서 못 나간다 하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요.
김태경 주무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나 5월 24일 정도에 가능하시면 참여 같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일단 있으신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상명 위원님, 신은경 위원님, 강유희 위원님, 현여준 위원님 네 분이신 거죠. 한 분 더 있으실까요? 일단 그러면 네 분이시니까요. 나머지 한 분이냐 다른 분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대상은 초등학교 북스타트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인 경우 해당 부서와 간사님께서 향후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는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